§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Pilgrim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

(마 13:51-52)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 "이 모든 것을 깨달았 느냐?"라고 물으시고 마침내 마지막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52절).

1.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서기관은 영어로 'teachers of the law'이며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서기관은 또 Scribe 라고 하는데 서기관의 중요한 일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서기관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 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자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느 8 장).

이처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그들의 영혼을 깨어나 게 하므로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의 거룩한 일꾼 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 사 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2. 천국의 서기관들의 역할

예수님은 천국의 서기관은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자기 집안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곳간은 헬라어로 '테 사우로스'라고 하는데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곳간에는 옛 것과 새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곳간에 있는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 음껏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 자 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뭇 사람들에 게 전하므로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는 역 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로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극히 값진 진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해야만 하는 보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그 보물을 소 유하고 있는 우리는 그 보물을 왜 소유해야 하는지 그 보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그 지극히 값진 보화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를 알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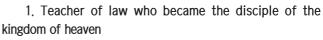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행복을 누리시며 늘 영혼구원을 위해 힘 쓰시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 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Owner of House who brings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Matt. 13:51-52)

After Jesus spoke seven parables, He asked, "Have you understood all these things?" Finally he said the final parable.

"He said to them, 'Therefore, every teacher of the law who has been instructed about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house who brings out new treasure as well as old' "(v. 52).



"Teachers of the law" in English refers to those who teach the law. The teachers of the law might be as well called a scribe. Among their important works, there was also a transcription of God's word.

When a representative scribe Ezra in the Old Testament read God's word and interpreted it for the Israelites, all of them listened to it and

wept. The work of confession happened, and the work of revival happened (Neh 8).

Like this, since scribes read, meditated, spread

Like this, since scribes read, meditated, spread God's word, and had many souls waked up, they were holy workers of the Gospel to bring salvation. As the first Christians, we need to prove the Gospel to the worldly people.

2. The scribe's role in the Kingdom of heaven

Jesus says that the scribe 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he owner of a house who brings out of his storeroom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The owner of house is a man who is able to do anything in his house. The storeroom 'tesauros' in Greek refers to "treasure house'. The owner's storeroom indicated the new storeroom and the old, which means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And, to bring out of the storeroom the new treasure as well as old is to use Jesus work with devotion through the Old Testaments and the New Testaments. In other words, those who became the disciples of the kingdom of heaven must spread the Old Testaments and the New Testaments equally to many people, and play a role to make them to be saved.

My beloved Christians,

And this ends the parables in the book of

Matthew 13. Jesus Christ is our great valuable pearl, and our treasure that we must sell everything we have in order to possess it.

Nevertheless, we who possess God's only one son, Jesus Christ, his kingdom, and treasure, sometimes forget that why we have to possess it and what is the value of it.

Jesus message through Matthew 13 is very clear. It means that we must realize the great valuable treasure of God's Son, Jesus Christ, and the kingdom of heaven. We must know the

value of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the inherited sinners, and love him in our heart. It means that for him, we must be able to offer our life.

By being joyful, enjoying happiness, and trying always to save heart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come the blessed people enjoying eternal life, and happiness and comfort with Jesus in the eternal kingdom together with Jesu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② 2014년 6 월 8일 순례자

2014 홍 해 작 전

주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 11:16) 6월 6일(금)~25일(수) 새벽 5:00~6:00 /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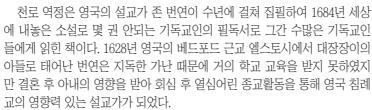
2014 홍해작전(참모장 이영기 장로)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히 11:16)라는 주제로 승전을 위 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첫날인 6일, 본당 2, 3층을 성 도들이 가득 채웠고,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 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25일(수)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는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중심으로 하여 순례자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된다. 홍해작전에 원거리에서 참석하는 성도 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 다락방별로 카풀을 권장한다. 또한 출석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아부부터 고등부까 지는 7번 이상, 청년1, 2부는 14번 이상, 장년부는 전 기간을 출석하면 마지막 날 의미 있는 기념품을 준비 하여 시상한다.

6월 21일(토)은 "다음세대를 위한 축복기도의 날" 로 정하고 영아부부터 청년1, 2부까지 모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는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천로역정"을 머리말로 하여 4 행시를 공모하며, 영어예배부는 "PILGRIM"으로 7행 시를 공모한다. 교육1국은 산문, 그림 그리기 등 교 회학교별로 5점씩 선정하여 홍해작전본부로 제출하 면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마감은 6월 22일 (주) 오후 2시이다.

매일 아침 홍해작전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하는 성 도들을 위하여 8층 식당에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 되어 있다. 홍해작전 기간 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 으로 하며, 주일에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하지않고 평 상시와 같이 5시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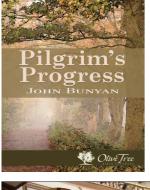
존 번연과 처로역정



천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어느 날 꿈 속에서 멸망의 소식을 접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하며 천로 역정은 시작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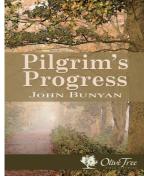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국을 가기 까지 숱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좁은 문 을 제시하는 전도자를 만났지만 가족들은 그의 순례길을 만류한다. 또 이웃 들은 그 길을 방해하기도 한다. 어디 그 뿐인가 유약함 때문에 때때로 포기하 고 낙심하여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한다. 어려 움의 산을 지나 겸손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악마와 싸워 승리한다. 또 죽 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끝없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했지만 마침내 그 모든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번 2014년 홍해작전을 통해 온갖 영적 유혹과 시험 앞에 기도와 말씀으 로 당당히 맞서 싸워 해같이 빛나는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 도하다. (편집부)



번연(John Bunyan)과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



6월 6일(금)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시작되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32)

(문 132) 시30편의 표제는 정확한 것입니 까? 시의 내용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 습니다.

(답) 마죠릭 텍스트에 의하면 시30편의 표제는 '낙성식 때 부른 노래, 시, 다윗의 시'로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시30편에서 시인은 심한 질병에 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 니다. 주님께서 그의 원수인 질병에게 그를 맡기 지 않으시고 그 일로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와 섬김의 도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시인은 12절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 사 드리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30편은 왕국 봉헌식에 사용되었고 후 대에는 수전절에 이 노래를 부르며 원수들의 발 아래 짓밟혔던 성전을 다시 보수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은혜에 감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 니다.

시의 표제는 영감 된 권위 있는 말씀이기보다 는 유익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만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 된 것입니다. 그러나 표제는 믿을만한 표기로서 가끔 시 자체의 내용을 쓴 직후에 첨부되기도 했 습니다.

우리는 시29편에서 중요한 사실을 찾을 수 있 습니다. 시29편은 공예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 한 시로 시작부터 하나님께 찬미로 가득 차 있습 니다. 그러나 시30편 바로 앞에 있는 이 시는 어 떤 것을 하도록 부르짖거나 요구함이 없이 하나 님만 찬양합니다.

1.W. Thirtle(The Titles of the Psalms, 2nd ed., London: H.Froude, 1905)은 대부분의 시가 표제를 전에 붙이기도 하지만 추가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고대 애굽이나 아카디아 사람 들의 찬송은 최종 표기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졌 습니다만 시편 정경 기록 시에 서기관들이 추가 된 것과 전에 붙여진 표제를 혼돈했다는 것입니

따라서 시30편의 표제(다윗의 시, 곧 성전 낙 성가)는 시29편 끝에 첨가되어 끝내는 표시였습 니다. 거기서 '다윗의 시'라는 말만 남아 있었고 ' 성전 낙성가'는 후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이렇 게 이해할 때 시30편의 표제의 부적절성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 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 입니다. 이 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에 밀 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 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 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 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 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 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 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 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 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 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 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야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 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교보고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흥남기 선교사(우크라이나)

지난 4월 고난 주간에 벌어진 세월호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 는지 모릅니다.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 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크라이나 와 대한민국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 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지난 키에프 중 심부에서 시작되면서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토록 급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리라고는 아 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미 크림반도는 러시아 로 편입이 되었고 오늘(5월 11일) 동부지역의 두 주 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로 인해 사실상 우크라이 나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 다. 오늘 이후 다른 나머지 동부와 남부 두 주에서도 주민투표가 예정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곳 사람들이 예상하는 수순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 국 민들은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 김나지아 290 학교에서의 사역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곧 있으면 3개월의 여름 방학이 시 작됩니다. 지난 4월에는 수업시간에 한국의 문화 소 개 차원으로 학생 모두가 한복을 입는 시간을 가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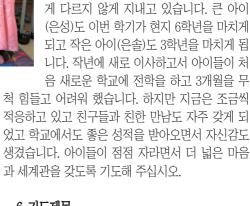
습니다. 뜻밖에도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고 예쁘게 보여서 좋았습 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관계 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3. 외국어대 한국어과 학생들 사역도 은혜가운데 계속 진행되 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 수 업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



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현지 이 학생들 중 일 부를 대상으로 주중에 저희 집에서 매일 3~4명 한 국어를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요 모임에 나오 는 학생들도 있고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학교 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서 집에서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쁨도 함께 자랄 수 있도록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태권도 사역은 어느 정도 대사관과 조율을 하 고 있습니다. 한가지 소식은 태권도 수업이 다음학 기부터 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하기로 체육학과 담 당과장과 얘기했습니다. 체육수업을 이용한 정식수 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수업으로 태 권도를 가르치면서 기회가 되면 한국어도 함께 가 르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토요 모임에도 참여하게 해서 한국어과 학생뿐 아니라 다른 언어 과 학생들도 함께 신앙 훈련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5. 저희 가족은 은혜가운데 잘 지내고 있 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어렵지만 감

사하게도 아이들도 저희 부부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 키에 프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주변 여건도 크

6. 기도제목

- 1)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민들이 더 이 상 희생당하지 않기를.
- 2) 김나지아 290 쉬콜라 2학년 학생들이 조금씩 기독교 신앙에 접근해 갈 수 있도록. 계속 수업을 진 행하게 될 김인규선교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3)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 대부분이 미 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신앙으로 잘 극복하며 9월부터 새로운 신입생을 맞이하고 홍 남기선교사의 한국어 수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 4) 외국어 대학교 태권도 수업을 시작으로 현지

학생들과의 연결이 이루어지 며 태권도를 통해 신앙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5) 가족이 불안한 우크라이 나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흔들리지 않고 특히 아 이들(은성, 은솔)이 한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을 잘 준비 할 수 있도록



4

어머니하트스쿨

힐링의 취간, 여러 하라트스쿨



박선미 성도 (16교구)

2013년 겨울 간절히 울면서 했 귀한 던 기도가 생각납니다. 시작은 첫 통해/째 아이 때문이었지만 첫째 아이 니다. 를 통해 드러나는 나의 상처가 아 세이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가야 알게 되었고, 평생 나를 불안하게 더 많했던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께 하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유해 인도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0세구) 처음에는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둘째 아이를 데리 고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았고 금액 또한 너무 부담

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 「어머니 하트 스쿨」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어머니하트스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알 수도, 풀 수도 없고 말 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말씀과 함께 미술작업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는 매 시간이 신기 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치유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얻었습 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책을 찾아 읽고 내 스스로 해 나가야 했기에 상처 난 가슴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답답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성령님과 함 께 하는 이 시간은 나의 상처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 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나의 상처가 내 자녀에게 까지 전해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기에 저는 영, 유아 자녀를 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하트스쿨」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영, 유아 어머니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만나고, 나 자신을 다시 셋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영,유아 어머니하 트스쿨입니다.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모든 교역자들은 반 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 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 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남녀 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나눔의 집

하절기를 맞아 나눔의 집에서 성도님들의 따뜻 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눔의 집은 서울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전도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감 당하고 있습니다.

의류, 신발, 가방, 소형 가전등 무슨 물건이든 환영하며 기왕이면 깨끗하게 손질하여 주시면 좋 습니다.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6월10일(화) 몽골울란바타르대학교 제18회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한다. 이를 위해 9일(월)출국하 여 12일(목)귀국한다. 6월13일(금)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6 회 장로교의 날 대회준비위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6월 14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월례기도회, 발표회 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6.8)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6.15)
- 금주의 식사, 떡 제공 :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노중환 성도 조순임 성도

노선균 집사 김의정 집사 (고 이민화 권사님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동 선생님 아주 맛이고 다음씨 가 차하고 우리들을 아주 잘 가는데 자신다.

수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계속 되는 홍해작전에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여 폭 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도록
- 2.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 다음세대를 온 교회가 품고 기도하여 다음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도록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본 당
	Ⅲ 부 예배	오후 2시	Ⅱ,Ⅲ,Ⅳ 층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체으트린으다 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I,Ⅱ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E815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